

잔인한 현실과의 대면...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파주·연천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2023년까지 600억 투입...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도

경기도가 2023년까지 600억원을 투입, 파주와 연천지역을 DMZ생태평화관광지구로 조성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 북부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600억원(도비 100%)을 투입해 파주권역과 연천권역으로 나눠 DMZ생태평화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권역은 DMZ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한편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마을특구를 조성한다.

또 연천권역은 두루미 깃대생태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 동·식물을 활용, 두루미 서식지 보전 사업, 두루미 학습원, 임진강 역사·문화센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DMZ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100억원(도비 100%)을 들여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한다. 특히 도는 세계생태평화축제에 북한 주민들을 초청, 전 세계인들과 어울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생태평화축제는 생태·평화와 관련된 전시회 및 학술포럼, 토크 콘서트, 박람회 등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도는 생태평화 뿐 아니라 남북 문화·체육교류를 위한 DMZ공연예술클러스터와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군 순찰로를 걷는 '올레길'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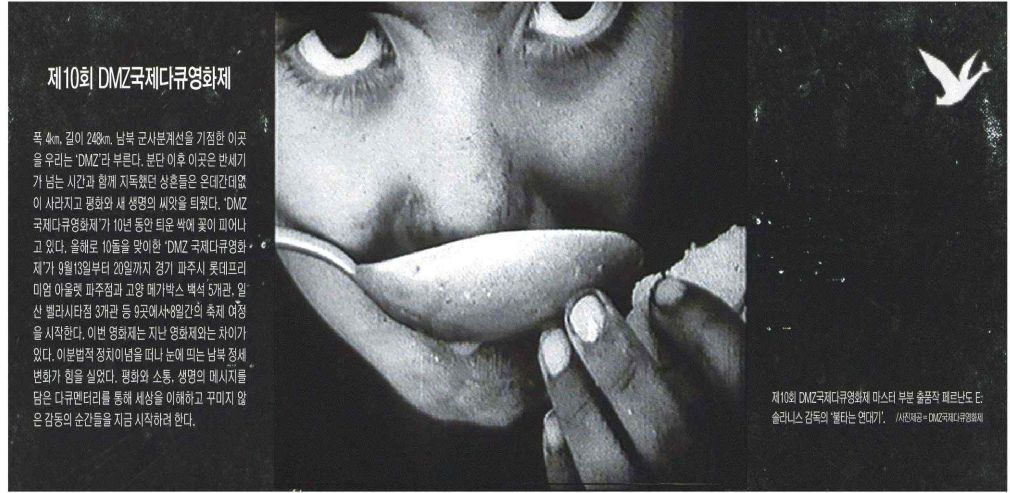
DMZ공연예술클러스터는 39억(도비 100%)의 예산을 들여 파주 임진각이외의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공연 공간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DMZ올레길 조성은 19억(도비 1

00%)을 투입, 군 순찰로를 활용한 올레길 조성과 함께 경계 초소(GP·Guard Post) 등을 DMZ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예정 지역에 DMZ일원 민간인통제구역도 포함하고 있어 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남북관계 여부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지속되는 등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제부 기자 jis3385@incheonilbo.com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폭 4m, 길이 240cm. 남북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이곳을 우리는 'DMZ'라 부른다. 분단 이후 이곳은 반세기 가 넘는 시간과 함께 지독했던 상흔들은 은근간대면이 사라지고 평화와 새 생명의 씨앗을 틔웠다.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10년 동안 틈을 뚫어 놓아 피어나고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8월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 파주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과 고양 메가박스 백석 5개관, 일산 별리시더점 3개관 등 8곳에서 8일간의 축제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 영화제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분법적 정치이념을 떠나 눈에 띄는 남북 정체 변화가 힘을 실었다. 평화와 소통,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다크멘타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꾸미지 않은 감동의 순간들을 지금 시작하려 한다.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마스터 부분 출품작 페르난도 E. 슐라니스 감독의 '올레는 연대기' / 사진제공=DMZ국제다큐영화제

#이주노동자·남북화해, 영화제를 관통하다

지난해까지 개막식을 열었던 캄보디아에 비해 관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규모가 보다 커진 공간에서 열리는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특별한 장소만큼이나 특별한 개막작과 의미있는 작품들이 선보인다.

개막작으로는 내일 출산의 이주노동자 '미누'의 삶을 통해 그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을 그린 지혜연 감독의 '안녕, 미누'가 선정됐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신분 때문에 활동하던 미누는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강제 추방당하게 된다. 고국인 내일로 돌아가 사회적 기압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한국을 잊지 못하는 미누에게 8년 만에 한국 방문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그의 일국을 금지하고 또한 변 좌절과 맞부딪치게 되면서 잔혹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영화를 통해 보여준다.

이 작품은 18년간 한국에 살면서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싸웠던 '미누'를 주목하고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난민문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급격히 바뀐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속 북핵 사람들과 만남에 대한 열망은 작품으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지리료 인혜선 감독의 '올레'는 사람들의 고독한 싸움을 그린 김영조 감독의 DMZ 비전부분 출품작 '먼치불'에서는 남북 전쟁의 '올레'를 재조명하게 보여준다. 대인 지리료 인혜선 감독이 없었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시 명의 지리료 피해자는 사무를 보인다. 이를 모두는 부주의한 관리로 범죄되거나 유실된 지리료에 의해 유년기 때 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들은 지리료를 제거하는 것이 한 번도 통일의 초석이라 잊지 지리료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 '안녕, 미누' / 사진제공=DMZ국제다큐영화제

이주노동자 그린 '미누'로 개막

남북 평화 흐름 속 작품 쏟아져

작년보다 30편 증가 144편 상영

접근 쉽도록 장소변경·VR준비

또 평양축전에 참석했던 캐나다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린그레염 감독의 '캐나다 대표단 평양축전에 가다(The Canadian Delegation)'도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다. 미지의 세계로 인식되던 북한이 아닌 그들의 현재 삶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1989년 캐나다 공산주의 청년단이 평양의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모순과 불확실한 상황이 난무하는 역사 한 지점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평화, 생명, 소통의 현미경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파주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야외주차장 특설무대 개막식을 시작으로 고양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일산 별리시더점,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김포아트홀, 연천수레울아트홀, 오두산 통일전망대, 캄보디아 특별상영관, 임진각 평화누리 캠퍼스 일대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30편이 늘어나 39개국, 총 144편의 상영작과 특별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번 영화제 시상식은 경쟁부분과 비경쟁부분으로 나눠지며 경쟁부분은 국제, 아시아, 한국, 청소년 부분별 시상이 이뤄진다. 비경쟁 부문에 페르난도 E. 슐라니스를 비롯해 아비 모그라비 등 세계적 거장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마스터클래스 상영작과, 세계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클로드 란츠만 감독의 추모 특별 상영, 해와 영화제 수성작과 신작을 소개하는 글로벌 비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관련 다크멘터리 DMZ 비전 등 다크멘터리 영화의 결정체를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팔레티나 강수진, 미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심상정 의원, 대한민국 대표 노객 진중권, 영화평론가 토니 레인즈, 맛 컬리니스트 황교익이 추천하는 '내 생애 최고의 다크멘션'을 소개한다.

최영정 총괄감독은 "장소부터 달라진 이번 영화제는 기존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이뤄진 민중선 지역 캄보디아는 이번 접근이 쉬운 고양과 파주 일대로 장소를 선정해 진행했다"며 "VR 영화상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통해 관객들이 보다 신속하게 다크멘터리 영화제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기자 jis3385@incheonilbo.com